

“제가 이 책과 함께 고등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간다면 을 1등급 받을 자신 있습니다.”

알림 센터

- 시..._s2 10초 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더라 게 이만건가 보세요... 제가 발원 이유를 잘 알았습니다...
- 김어번 30초 전
내가 아이가 있다면 과외 선생님으로 모시고 싶다...
- 고어번 1분 전
학원 안 다니는 학생으로서 너무 유용한 팁들이네요!!
- 조오름 3분 전
정말 공부하신 분이려 다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 Ice000dic 000 4분 전
공부법도 그렇고 내용도 너무 훌륭해서 컨설팅을 맡기고 싶을 정도네요.

이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연필자루 Part 1

신재환

연세대 합격 성적표와 생기부 포함

연세대 합격에 필요한 전략과 자기관리 성공 루틴을 담은 책 Part 1

입시 정보 자기관리법 내신 1등급 공부법
수능 1등급 공부법 세부 작성법 면접 대비법

신재환 저

“방향성이나 서술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이 선배의 생기부는 일반고 친구들이 꼭 참고해봤으면 좋겠다.”



개별 ISBN 979-11-986713-1-8
세트 ISBN 979-11-986713-0-1
₩ 26,800원

재와니의 휴미생활

연세대 IT융합공학과 최초합격 선배가 알려주는 최상위권 입시의 모든 것!

“내신 2.05로 연세대 최초합격을 했다고요?”
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재와니의 휴미생활

- 유명 입시 컨설턴트, 유니브 클래스 합격생 노트 중에서

무료 배포본

연필자루

V. 내신 시험 무조건 1등급 받는 방법

05. 내신 수학 무조건 1등급 받는 방법

이 자료를 복제/배포하는 것은 허용하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편집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합니다.
© 2024 All rights reserved by 신재환

풀버전은

파일 맨 끝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자음이 신재환
연세대학교 IT융합공학과 24학번 최초합격

어렸을 때부터 창작을 좋아했다. 취미로 영상편집, 3D 모델링 및 3D프린팅, 컴퓨터 조합, 전기자전거 조합, 코딩을 하고 있다. '재와니의 휴미생활'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공지능, 앱, 웹 서비스로 스타트업을 하여 연세 창업가의 길을 걸으려 한다. 입시는 그저 시작일 뿐이다.

- 유니브 클래스 생기부 도움받기 집필진 연보
- 前 카이스트 KSOP 멘티
- NH중랑회장상 우수상
- 용인고 교과우수상 11개 영역 수상
- 용인고 교내인재상-공포상 외 20개 영역 수상
- 부산교육대학교 발명 대상
- 세계청소년올림피아드 발명 은상
- LG생활과학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상
- 국립중앙과학관 학생과학발명진흥회마당 인기상
- 용인고 3학년 과학중점반 학급장
- 동래 영재교육원 과학 영역 최우수 수료 및 졸업
- 동원중 전교학생회장
- 서동초 전교학생부회장

책 연필자루 | 취소

이 책은 온라인 쇼핑들을 통해 구매 가능합니다. 쇼핑물에서 '책 연필자루'를 검색해보세요. 책이 도착했다면 쇼핑물에서 별점 5점 리뷰를 남겨주세요.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ㅎㅎ



저의 SNS 계정을 팔로우하거나 구독하면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습니다.

- 신재환 alemem64
<https://www.instagram.com/alemem64>
- 재와니의 휴미생활
<https://www.youtube.com/@alemem64>
- 재와니의 휴미생활
<https://orbi.kr/profile/370349>
- 재와니의 휴미생활 alemem64
<https://www.tiktok.com/@alemem64>

입시 Q&A, 오류 제보는 인스타 DM 주세요!

목차

I CHAPTER

머릿말 본말이 반대하니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어주세요. 012

저의 공부 특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01. MBTI, 나의 공부 동기부여 방법, 학교 특성 014
- 02. 내신과 수능 성적 알려주세요. 023
- 03. 수시 현시 어디에, 어떻게 넣었나요? 033
- 04. 연세대 최종합격 요인은 무엇이었나요? 034
 - ☞ 본적: 인천권, 국제권, 비국제권
- 05. 내 방 모습으로 보는 푼 책들과 취미들 039

II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입시 정보

- 01. 입시에서 성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5가지 047
- 02. 메카스터디, 시대인재, 리셀은 무엇인가? 051
- 03. 학평, 평가원 모고, 시제, 실모는 무엇인가? 057
 - ☞ 올해가 2024년인데 2023 수시 현시 답은 어느 해의 답을 봐야 할까요?
- 04. 동네학원과 교수소, 공부방이 필요한가? 062
- 05. 과외는 의대생한테 066
- 06. 여기까지 알면 수시에 대해 딱 다 아는 거예요. 069
 - ☞ 수시 면접을 하지 않고도 합격할 수 있는 학교
 - ☞ 내외 수시까지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릴게요
- 07. 여기까지 알면 정시에 대해 딱 다 아는 거예요. 086
 - ☞ 원외 대학(예:고시)으로 정시 합격 사례들
- 08. 정보 얻는 법: 유튜브, 수만휘, 디시, 유튜브 093
- 09. 06년생 이후 필독: 2028 대입 개편안 분석과 대비법 098
- 10. 의대 최종합격 친구가 말하는 의대 간 이유 102
 - ☞ 본적: 인천권, 국제권, 비국제권, 최종합격까지 교육과정에서 있었던 일
 - ☞ 의사생활 안 좋은 점

III

의대, 연세대 가는 초중등학생 입시 정보

- 01. 초중학생부터 고3까지 나의 공부 일대기 107
- 02. 의대, 연세대 합격하는 초중등 교육법 114
 - ☞ 학원만 공부하기 보다는 자습시간, 자습 방법 잘 익혀야만 사해
- 03. 고교 선택법과 복독, 자사고 가는 법 120

IV

자기관리 루틴과 필수 입시 생활 팁

- 01. 하루 15시간까지 공부 시간 늘리는 법 124
- 02. 실매 없는 플래너 작성법 130
- 03. 수면 시간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합니다. 132
 - ☞ 기상 직후: 샤워하기 + 스킨, 코팅제로 피부 관리
- 04. 공부하다가 졸릴 때는 이렇게 하세요. 136
- 05. 반강제적인 하루, 토요를, 방과후 해야하나? 140
- 06. 수업 시간에 다른 과목 공부해도 되나? 144
- 07. 스타디카페가 필요한가? 146
- 08. 사프, 지우개, 색갈펜은 이것으로 구매하세요. 148
- 09. 태블릿, 이어폰, 책상, 의자는 이것으로 구매하세요. 159
- 10. 책가방, 필통, 탁상 조명은 이것으로 구매하세요. 162
- 11. 제본 3년차의 프린트 구매와 제본, 알면 인제 가이드 164
- 12. 피부와 헤어 에드름 관리하기 169
- 13. 공부하면서 운동 없이 17kg 감량하는 법 176

전체 목차

이 파일에서 다루는 부분은 빨간 박스로 강조한 부분입니다.

V

내신 시험 무조건 1등급 받는 방법

- 01. 정시 말고 수시를 해야 하는 이유 180
 - ☞ 본적: 교육청별 특목, 수시(내외)와 정시(내외)의 차이
- 02. 내신 한 달 계획 이렇게 하면 됩니다. 186
- 03. 교과목 공통 필수 시험장 행동 지침들 188
 - ☞ 시험 준비 방법들
- 04. 내신 국어 무조건 1등급 받는 방법 192
 - ☞ 국어: 언어의 발달과정, 문학사, 고전문학사, 국사, 국문
- 05. 내신 수학 무조건 1등급 받는 방법 202
 - ☞ 국문: 수학 원리, 수론, 기하, 미적분, 확률, 통계
 - ☞ 수학: 수학 원리, 수론, 기하, 미적분, 확률, 통계
- 06. 내신 영어 무조건 1등급 받는 방법 247
- 07. 내신 알기과목 무조건 1등급 받는 방법 272
 - ☞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역사, 사회, 외국어, 정보
- 08. 내신 문화생지 무조건 1등급 받는 방법 293
 - ☞ 내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사회, 외국어, 정보
- 09. 우리 학교 교년도 기술문제 활용하는 방법 311
 - ☞ 원문: 논술, 수필, 에세이, 사설, 시사, 사회, 외국어, 정보
- 10. 예체능 · 절대평가 과목 무조건 A 받는 방법 315

VII

전국 탑수준의 생기부 작성법 A to Z

- 01. 생기부의 시작 : 자신만의 색깔을 정해야 합니다. 327
- 02. 세상에서 가장 쉬운 섹트 소개 하는 방법 331
- 03. 수준 높은 섹트 쓰는 법 : 틀에 맞춰 쓰기 335
 - ☞ 활동: 봉사, 프로젝트, 학업, 인턴, 동아리, 봉사, 문화
- 04. 나이스 글자수 계산기 + 노신 : 최고의 섹트 작성 도구 340
 - ☞ 국제: 노신, 노신, 노신, 노신, 노신, 노신, 노신, 노신
- 05. 연세대에 최종합격 한 저의 생기부들 들여다봅시다. 345

VI

내신 시험 끝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들

- 01.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답 비교 하지 마세요! 316
- 02. 잘못된 기록해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공부방 찾기 318
- 03. 문제 출처를 확인하고 문제집 바꾸기 : 완다, EBSI 321
- 04. 시험 끝났더라 놓지 말고 섹트 쓰세요. 326

VIII

이렇게 수능 공부하면 인서울 공대 뚫습니다.

- 01. 정시과외를 위한 정시가 힘든 이유 380
- 02. 시간대별로 알아보는 2024 수능 답안의 모든 것 382
 - ☞ 수능: 국어, 수학, 과학, 영어, 외국어, 정보
- 03. 수능 국어 백분위 95 받는 법 427
- 04. 수능 수학 1등급 받는 법 437
- 05. 수능 영어 2등급 받는 법 444
- 06. 수능 한국사 만점 받는 법 450
- 07. 후회 없이 아주 상세한 수능 과학 섹트법 451
- 08. 수능 생명과학1 4등급 받는 법 459
- 09. 수능 지구과학1 1등급 받는 법 466
- 10. 디프, 뮐, 이투스 : 교과목 모의고사 마무리 점검 471
- 11. 가장 빠른 가제출 방법과 실모 깔끔하게 보전하는 법 472
- 12. 폼서비스, 텔레노시스, 전학사 사용하기 475

총 25 페이지입니다.
내용이 다소 길지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한편 이 파일은 태블릿
읽기용에 적합합니다.

제본을 원한다면
지금 이 페이지 다음에
빈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문제 없이
양면 인쇄가 될 것입니다.

IX

연세대 면접 하루만에 완벽하게 끝내는 법

- 01. 연세 1차 합격부터 최종 합격까지의 이야기 476
 - ☞ 2024연세대, 연세대 합격수험생 1차 면접 경험
 - ☞ 연세대 면접을 한 거기로 끝낸 이유
- 02. 2024 연세대 면접은 이렇게 대비하면 좋았습니다. 510
- 03. 필독 : 2025 연세대 면접 변화 포인트와 예상되는 질문 521
- 04. 모든 대학 공통 면접 화제와 준비물들 522

X

부록

- 01. 모두 다 한 번에 모아 보기 56개 항목
- 02. 책에 나온 모든 자료를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링크 29개 항목
- 03. 책에 나온 모든 웹페이지 링크 12개 항목
- 04. 책에 나온 모든 공부 자료 및 도움이 되는 첨부 파일 7개 항목
- 05. 자체 제작 노신 생기부 기록지 템플릿 복제하기 1개 항목
- 06. 과목별 10.0 전 부분으로 나눠어진 수능 타종 7개 항목

X

미처 못 다한 이야기들과 마지막으로 드리는 조언

- 01. 인장 최소한으로 줄이세요. 524
- 02. 2025년에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뒤집습니다. 525
- 03. 1종 보통 운전 면허 100점으로 따는 법 530
- 04. 공부하기 정말 싫을 때 이렇게 하면 슬럼프 탈출해요. 538
- 05. 목이 빠진하거나 두통이 심할 때 이걸 하면 딱 풀려요. 539
- 06. 시판약과 경장대 시험을 봐서 수능을 연습하세요. 542
- 07. 1등급은 탈출 수 없는 곳 같아요... 인제를 가능할까요? 544
 - ☞ 본적: 인천권, 국제권, 비국제권, 최종합격까지 교육과정에서 있었던 일

본책 '인제'를
QR코드를 촬영해서 부록에 입장하기



QR코드를 촬영해서 부록에 입장하기

V. 내신 시험 무조건 1등급 받는 방법

05. 내신 수학 무조건 1등급 받는 방법

수학입니다. 국어와 마찬가지로 3줄 요약, 수학 과목별 시험 범위 소스, 부산용인고 수준, **개념 공부법**, 수학 FAQ, **유형 문제집**, **시험 직전 공부법**, 시험장에서 대비법, 마지막 조언 순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3줄 요약

1단계 시발점 + 뉴분감을 학기 전에 끝내고

2단계 3주 전까지 올림포스, 올림포스 고난도, 일등급 수학, 일품 수학, 고쟁이, 자이스토리, 블랙라벨, 최강TOT, 531 하이퍼 등 시중의 문제집을 싹 다 푼다.

3단계 5일 전에 교과서와 프린트를 몰아서 빠르게 푸는 것을 5회독한다.

2. 수학 과목별 시험 범위 소스

수학 상(1-1) <교과서 + 학교 학습지> 20%, <여러 고난도 문제집> 80%

수학 하(1-2) <교과서 + 학교 학습지> 20%, <여러 고난도 문제집> 80%

수학I(2-1) <교과서 + 학교 학습지> 20%, <여러 고난도 문제집> 80%

수학II(2-1) <교과서 + 학교 학습지> 20%, <여러 고난도 문제집> 80%

미적분(2-2) <교과서 + 학교 학습지> 20%, <여러 고난도 문제집> 80%

기하(2-2) <교과서> 80%, <여러 문제집> 20%

확률과 통계(3-1) <교과서 + 학교 학습지> 20%, <여러 고난도 문제집> 80%

심화수학I(3-1) 수특 수I + 수특 수II + 수특 미적 : 절대평가이지만 고난도만 냄.

심화수학II(3-2) 수완 수II + 수완 미적 : 절대평가로 쉽게 출제

인공지능 수학(3-2) 수완 수I : 절대평가로 쉽게 출제

심화수학I, 심화수학II, 인공지능 수학은 뭐하는 과목인가 싶을 텐데 일단 심화수학은 수I 수II 미적, 확통, 기하 전체를 하나로 합친 책이라 보면 됩니다. 행렬 빼고는 새로 배우는 것이 없습니다. ‘인공지능 수학’은 과목에서 수학을 빼고 ‘인공지능’ 과목이라고만 해도 될 정도로 수학

보다는 교양 과목에 가깝습니다. 예비고1인 분들을 위해 수학 상하에 대해 설명하자면 상하는 12,미적,확통,기하와 구별됩니다. 상하는 수능에 출제되지 않아서 내신용 과목이고 나머지는 수능 출제 과목이라 컨텐츠가 많습니다. 09년생 이후부터는 수능 출제과목에서 심화수학이 빠집니다. 심화수학은 현행 미적, 기하를 말하는데 아마 빠센 학교라면 심화수학 내신을 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부산 용인고 수학 수준

죽보닷컴에서 휘문고, 제철고 여러 곳을 풀어봤는데 진심 용인고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시험지는 자사고보다 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어려운 학교 기출문제를 찾고 있다면 부산용인고 수학을 풀어보세요. 참고로 2023년 이후의 시험은 제한 시간 일괄 60분이고 2022년 이전 시험들은 제한 시간이 70분입니다. 객관식 16문항, 서답형 4문항이고요. 1학년은 객관식 앞 번호에 뜬금포 킬러가 나오고 서답형은 뒤로 갈 수록 어렵습니다. 2학년은 보통 15번, 16번에 킬러가 나오고 서답형은 마찬가지로 뒤가 어렵고요. 출제쌤이 바뀌는지라 연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킬러 문제는 531 하이퍼와 올림포스 고난도에서 가져오는 것을 좋아하고 수능 출제 과목이라면 유명한 킬러 문제도 나옵니다. 쌤들과 학원만 아는 문제 은행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수학 전교 1등은 '수학 천재 + 2년 뒤 범위의 수학 선행을 초등학생 때부터 함 + 고2 수II 내신 준비하는데 이미 전과목 드릴 모든 연도 다 품 + 모든 킬러 문제 완벽히 암기 + 시중의 서점 문제집 다 품 + 학원 프린트 압도적인 양 다 품.' 정도의 실력입니다. 지옥이나 다름 없습니다. 대부분 1문제 푸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수학 괴물들이 다수 분포해서 1등급 받으려고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수학 천재도 아니고 선행도 많이 안 했거든요. 저는 평범하지만 노력만으로 승부를 보는 학생이었습니다. 결국 1등급을 1번 따냈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사실 수학은 특별한 공부법이 없습니다. 그냥 양치기입니다. 일정한 양을 풀면 그렇게나 높아 보이던 벽을 뛰어 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고통스럽죠. 저도 평생에 딱 한 번은 수학 1등급을 받으려고 엄청나게 많이 공부했습니다. 1등급을 따기 전까지는 학교에 수학교과물들이 많아서 매년 2, 3등급이었습니다. 내신 1등급은 도저히 받을 수 없어 보였고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학평은 1등급을 놓친 적이 없지만요. 그만큼 내신 따기 힘든 곳입니다.

수학은 특별한 공부법이 없기 때문에 방법에 대해 단계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경험 위주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4. <내신 수학 공부 1단계> 개념 공부 제대로 하기

수학은 개념이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수학 고수들 입장에서 ‘수학 1등급을 받기 위해 수학 개념을 공부하자.’는 ‘연봉 1억을 벌기 위해 매일 물을 한 잔 이상 마시자.’와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없어서는 안 되지만 너무 기초적인지라 이것만 해서는 1등급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매우 기초적인데 초보자는 실행하기 어려워 합니다. 수학 고수는 물을 컵에다 따라 마시지만 초보자는 물을 요강에 받쳐 마십니다. 초보자는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죠.

물을 컵에다 따라 마시는 방법은 ‘현우진의 시발점, 뉴런, 수분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반면 물을 요강에 받쳐 마시는 방법은 ‘학원에서 수학 선행을 나갔지만 개념서 1권 읽기만 하고 고난도 문제를 풀지도 못하고 모의고사 3등급도 안 나오면서 선행이 끝났다고 망상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원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학원은 수학을 걸핍 기식으로만 가르칩니다. 장담하는데 수능에서 중간 난이도 4점, 어려운 4점 혼자 못 풀면 그건 개념 공부를 끝낸 것이 아닙니다. 13번, 20번, 27번 이 정도는 혼자서 풀고 맞출 수 있어야 개념공부 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고난도 문제를 혼자 풀 정도의 실력까지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은 학원, 과외 등 여러 수단이 있겠지만 학생 혼자서 공부한다면 현우진을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가는 방법입니다. 현우진이 좋은점은 개념을 걸핍기식으로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문제에 적용하며 알려준다는 점입니다. 또한 강의에서 외워야 하는 것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 풀며 익히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주어 초보자가 수학 개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패스는 60만원이고 단과로 수학 상, 하 따로 구매하면 한 과목에 15만원 정도 합니다. 상, 하의 시발점만 있고 뉴런, 수분감은 없기 때문에 상하만 공부한다면 단과를 사고, 수1, 수2, 선택과목처럼 수능 출제 과목을 여러개 공부한다면 패스를 끊는 것이 싸게 먹힙니다. 어차피 과탐도 들어야 하니까요. 현우진은 이미 증명된 분이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현우진을 듣기로 했다면 강의에서 시킨 대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시발점은 대략 50강이라 시간이 많다면 하루 1강이면 되겠지만 저는 방학 때 했기 때문에 하루 2강씩 들었습니다. 뉴런, 수분감은 과목당 30강 정도입니다. 또 시발점, 수분감은 과거에 찍은 강의이고 뉴런만 매년 새로 촬영합니다. 다른 강사보다 강의를 어려운데 어려워야 빨리 깨닫습니다.

현우진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을 위해 커리큘럼에 대해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발점은 개념60% + 유형30% + 기출10%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름 그대로 수학을 시작하는 강의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공부해도 3등급 나옵니다. 그 다음 뉴런은 시발점의 고3 버전이라 보면 되는데 개념을 빠르게 다시 짚어주고 수능에 쓰이는 스킬을 배웁니다. 수능 대비의 시작입니다. 중요하지만 역시 기초적이라 나중엔 크게 안 쓰기도 합니다. 뉴런과 함께 듣는 것이 수분감입니다. 수분감은 1994년 첫 수능 때부터 현재까지 교육과정에 맞는 모든 평가원 문제를 수록한 기출 문제집입니다. 역시 필수이고 제대로만 한다면 다른 것은 필요 없습

니다. 그 다음은 드릴입니다. 드릴은 N제인데 쉬운 문제와 킬러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수분감과 비슷한 난이도이지만 조금 더 어렵고 수능 문제 연습용이라 보면 됩니다. 매년 새 버전이 출시되었는데 옛날 것들을 묶어 드릴드를 만들었고 23드릴, 24드릴, 25드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은 킬링캠프입니다. 실모이고 수학 실모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실모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우진 커리큘럼의 끝인데 내신을 공부한다면 시발점 + 뉴분감(뉴런+수분감)까지만 합니다. 그 이후 문제집은 고3 때 하거나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을 때 풉니다. 이제 실력이나 시간별로 어떻게 개념 공부를 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에게 해당 안 되더라도 도움이 될테니 모든 케이스를 다 읽어주세요.

1) 초중생이고 2년 뒤 내용을 선행하고 있음 + 학원이나 과외로 공부함

학원, 과외는 전문 분야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풀어보시고 3등급 이상 잘 나오게 만들면 됩니다. 모의고사는 EBSi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 탭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초중생이고 2년 뒤 내용을 선행하고 있음 + 혼자서 인강으로 공부함

초등학교, 중학교 내용은 엘리하이, 밀크T, 초코 등을 찾아보세요. 여기서 고등학교 수학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우진 시발점을 완강합니다. 워크북도 풀어라 하는데 다 풀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뉴분감을 병행합니다. 수분감은 STEP0, STEP1, STEP2로 이루어져 있는데 0단계는 매우 쉬운 문제만 있고 1단계는 어려운 3점부터 중간 난이도 4점까지 있습니다. STEP0와 STEP1는 대단원 별로 나뉘어져 문제가 시간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반면 뉴런은 대단원 속의 소단원마다 강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뉴런을 먼저 들어서 해당 대단원, 예를 들어 'I.지수와 로그' 대단원을 다 듣고 난 다음 수분감의 'STEP0 I.지수와 로그'를 다 풀고 'STEP1 I.지수와 로그'를 다 풀면 됩니다. 뉴런에서 배웠던 내용을 써먹겠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

음 대단원으로 넘어가고요. 이때 ‘뉴런을 듣는다’는 것은 ‘뉴런 강의 수강 + 개념 판서 메모 + 뉴런 문제 혼자 풀이 + 문제 해설 판서 메모 + 시냅스 문제집 풀기’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수분감을 듣는다’는 것 역시 ‘수분감 개념 판서 메모 + 문제 혼자 풀이 + 문제 해설 판서 메모’까지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저도 중학생 때 해봐서 아는데 이해도 안 가고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해가 될 때까지 강의를 돌려보면서 끝까지 푸세요. 본인이 머리가 좋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겁니다. 이렇게 하면 뉴런과 수분감이 끝나는데 **수분감의 STEP2**를 못 끝냈습니다. 이제 STEP2를 풀면 됩니다. 여기는 시험지에서 가장 어려운 킬러 문제만 모아둔 곳입니다. 풀릴 때까지 고민해서 풀고 강의를 본 다음 **반드시 풀이를 썩 다 외웁니다.** 풀이를 외우는 방법은 **5번 정도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푸는 것입니다.** 수학 괴물들은 “2017년 수능 나형 21번 그거 있잖아.” 하면 문제도 떠오르고 가장 간단한 풀이가 뭔지도 다 떠오릅니다. 역시 힘든 과정이지만 필수적으로 거쳐가야 합니다. 킬러문제 해설을 외워야 하는 이유는 모든 시중의 문제집과 내신 시험이 킬러문제를 모티브로 삼고 출제하기에 수능칠 때까지 계속 써먹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고 모의고사를 풀어보세요. 평가원은 다 풀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고등학교 학평을 풀면 됩니다. 학평마다 시험범위가 다른데요. 구글에 학평 시험범위를 검색하면 EBSi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출제 범위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맞는 연도, 월을 골라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등급컷은 ‘2023 3월 고1 학력평가 등급컷’ 이렇게 검색하면 점수에 따라 등급이 나오니 자신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고요. 3등급이면 나쁘지 않고 2등급이면 잘 했고 1등급이면 훌륭합니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1등급을 만들고 가면 내신을 다 씹어 먹고 메디컬을 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했는데도 시간이 남았다면 VIII. - 04.에 나오는 그 이후의 수학 공부를 이어서 하면 수학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3) 방학에 바로 다음 학기 내신을 위해 선행하고 있음 + 인강으로 공부

학원이나 과외를 해도 상관 없지만 저는 비추천합니다. 학원은 정말 좋은 학원이 아닌 이상 동네 학원이라면 인강이 낫고, 과외는 의대 선생님이라면 인강이 낫습니다. 일단 인강을 듣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방학에 시발점을 다 끝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방학 끝나기 전에 시발점을 끝냈다면 뉴분감을 진행합니다. 평범한 열정적인 학생이라면 방학이 끝나고 좀 지나서 완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신 기간까지 유형 문제집을 풀면 됩니다. 만약 시발점이 오래 걸려서 뉴런, 수분감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뉴분감은 포기하고 자이스토리를 풀면 됩니다. 시발점부터 뉴분감을 푸는 방법은 방금 전에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즉, 2학년 1학기에 수1과 수2를 한다면 1학년 겨울방학에 시발점 수1 수2는 끝내도록 노력하시고요. 뉴분감을 4주 전까지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진행하고 못하겠다 싶으면 자이스토리를 풀면 됩니다.

5. 수학 FAQ : 수학 공부할 때 무조건 생기는 막막함에 대한 답변

1) 개념을 자주 까먹어요. 시발점 다시 들어가 할까요?

저도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입시판에서 후퇴는 없습니다. 했던 것을 또 하지 마세요. 의미 없습니다. 개념은 서울대 의대 학생도 처음엔 다 까먹습니다. 까먹었다면 시발점에 적은 **개념 판서 메모를 다시 읽고** 필요하다면 **다시 암기**하면 됩니다. 한 4번쯤 까먹어서 다시 돌아가고 암기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 안 까먹을 것입니다. 강의는 절대 다시 듣지 마세요. 제자리걸음입니다.

2) 외우기 너무 어려운데 좀 더 쉽게 외우거나 이해하는 방법은 없나요?

앞으로 입시를 하며 이런 생각이 수천 수만 번은 들 것인데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외**

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상황마다 다르지만 현우진이 이걸 그냥 외우세요. 이걸 이해하세요. 알려주니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제 사례를 들어 보자면 저는 로그를 처음 배울 때 왜 밑은 1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진수는 1이 되도 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밑은 1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진수는 1이 되도 되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밑이 1이면 몇 제곱을 하든 간에 계산결과가 1이 돼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인데 사실 수능 수학에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약간의 배경지식일 뿐입니다. 그냥 외워라는 것은 외웁시다.

3) 문제가 너무 안 풀려요... 혼자서 얼마나 고민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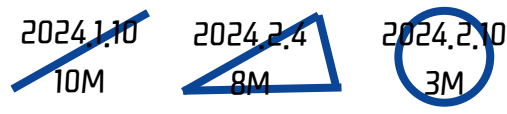
내신 공부할 때, 시간이 많다면 제한을 안 두는 것이 좋긴 한데 10시간 동안 고민하면 다른 과목 공부를 못하니까 일반 문제는 1문제 당 고민 시간을 10분으로, 킬러 문제는 15분으로 제한하세요. 사실 대부분의 수학 문제는 3분만에 풀립니다. 킬러 문제는 9분 내에 풀어야 1등급이 나오고요. 고3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을 하는 것은 좋으니 제한 시간 동안 최대한 고민 해보세요. 저의 좌우명은 ‘고통=도약의 시그널’입니다. 고통이 크면 클 수록 열매가 달콤하니 많이 고통스러워 하십시오.

4) 해설지는 언제 봐야 하나요? 보면 안 된다는데.. 본다면 어떻게 봐야 해요?

아예 안 보면 안 됩니다. 혼자 풀었다면 슬쩍 봐주고 ‘대충 보니까 비슷하네.’라는 생각이 들면 안 읽어도 됩니다. 혼자 풀었는데 ‘이게 맞나?..’, ‘답은 맞았는데 너무 돌아간 것 같은데.’ 하면 꼭 처음부터 진득이 읽어보세요. 안 풀리다가 시간 제한을 넘었을 때도 과감히 해설지를 읽고요. 해설지는 처음 읽으면 잘 안 읽힙니다. 많이 읽어야 잘 읽히니까 이것도 참아야 합니다. 해설지를 많이 읽을 수록 수학 실력도 좋아집니다. 해설지를 보면서 어떻게 푸는 것인지 이해한 다음 해설지를 안 보고 혼자서 다시 풀어봅니다. 맞출 때까지 풀고 넘어가면 됩니다. 또한 해설 강의와 해설지가 둘 다 있다면 해설지만 보라고 강력히 권합니다.

5) 틀린 문제는 오답 정리 어떻게 하나요?

틀린 문제는 나중에 다시 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풀이를 문제집에 하지 말고 줄 없는 노트에다 하세요. 그리고 문제 아래에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날짜’와 ‘푸는데 걸린 시간’을 적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풀었는데 틀림’은 빗금으로, ‘혼자서 풀었는데 틀리고 나서 답지를 본 후 다시 혼자서 풀어서 맞춤’은 세모로, ‘혼자서 풀어서 맞춤’은 동그라미로 채점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답노트를 만들 필요도 없고 문제집도 1권만 있으면 됩니다. 문제집을 끝까지 풀고 나서 2회독을 한다면 처음부터 쪽 보며 빗금과 세모만 다시 풀면 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모든 문제에 동그라미로 표시할 때까지 회독하면 됩니다.



또한 틀렸으면 내가 어떤 계산실수를 했는지, 무엇을 떠올리지 못했는지, 어떤 개념 공부에 부족했는지 등 틀리거나 오래 걸린 요인을 파란색으로 적어주세요. 문제집 다회독은 선택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왜 틀렸는지 적는 것은 필수입니다. 또한 왜 틀렸는지 적었다면 이것을 수능장까지 가져야 하니 머리에 힘을 주어 기억하려고 애써보세요. 그것을 각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똑같은 상황에서는 실수하면 안 되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계속 실수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10번쯤 해서 각인을 10번 하면 실수를 덜 하게 됩니다.

6) 문제 푸는데 실수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나요?

가장 빠세지만 효과적인 방법은 문제를 맞췄더라도 사소한 실수를 했다면 그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푸는 것입니다. 이걸 습관으로 들이면 고쳐집니다. 다른 방법으론 내가 어떤 실수를 했고 왜 했는지 각인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50번쯤 하면 더 이상 안 하게 될것입니다. 실수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문제를 한 50,000문제 정도 풀면 해결됩니다.

7) 문제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손을 더 빠르게 굴려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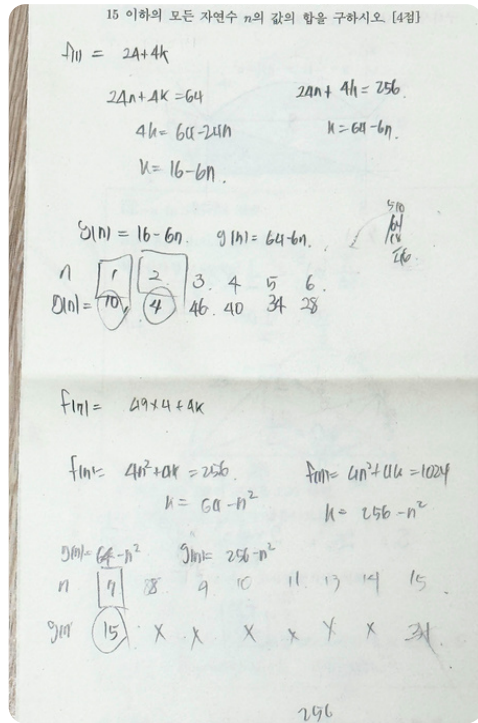
아니요.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손이 느려서가 아닙니다. 발상을 너무 느리게 떠올려서 그런 것이 가장 큼니다. 그 다음으로 는 쓸데 없는 연산을 하고 있거나 개념적으로나 스킬적으로나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솔루션은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모습을 촬영해보세요. 침대 스마트폰 스탠드라고 있는데 그걸 구매해서 손과 문제집만 나오게 찍어보면 됩니다. 그걸 밥 먹을 때 보세요. 그러면 ‘재완아... 무슨 생각하니? 그냥 이거를 대입하면 끝나잖아. 뭘 고민하는 거야...’ 하며 답답해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상황에서 헛짓을 안 하겠죠. 이 방법 좋습니다. 어찌 됐건 시간 부족은 실력 부족이고 문제를 많이 풀고 경험이 쌓여야 합니다. 실력은 없는데 손만 빠르게 굴리면 계산 실수만 많아집니다.

8) 풀이가 너무 지저분한 것 같은데... 그래서 자주 틀리는 것 같기도 해요.

먼저 수학은 넓은 종이에 풀이해야 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수학의 정석에 있는 그 매우 좁은 틈에서 풀이를 하는 건데요. 수학 문제는 A4 용지에 푸는 것이 가장 좋고 아니면 노트에 풉니다. 노트는 무조건 어떠한 줄이나 보조선이 없어야 합니다. A4 종이를 마련하고 풀이를 세로 기준으로 3분의 2 부분에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미리 줄을 그어 놔도 됩니다. 왜냐면 그 정도가 수능장에서 쓸 수 있는 종이 여백이거든요. 항상 거기에 맞춥니다.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수능장 수학 시험에서는 꺾데기 종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절지 스케치북 2개 사이즈에 필기를 할 수 있는데요. 킬러 문제 풀이용입니다. 따라서 일반 문제는 A4 3분의 2에다가 하고 킬러는 A4 여러장을 써서 풀면 됩니다. 큰 종이에 크게 적기만 해도 실수가 줄어듭니다. 또 풀이를 깔끔하게 하려면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만 써야지 왔다갔다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건 옆에서 교정해주는 것이 가장 좋아서 학원이나 과외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방법을 말씀해드리자면 가상의 네모 박스를 머릿속에 그리고 그 안에 식들을 집어 넣으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위에서 아래로만 쓴다는 것이고요. 하다 보면 앞에 썼던 식이 필요해지는데 그러면 옆에다 ① 이런식으로 적고 밑에서 '①에 따라'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선을 그어도 되고요. 풀이는 최대한 짧게 적을 수록 좋습니다. 길게 늘어 쓴다고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간결히 푸세요.



9) 인강 강사 판서 전부 베껴서 메모해야 하나요? 해설강의 모두 봐야 하나요?

개념이나 공식 판서는 전부 베껴서 메모하세요. 나중에 까먹어서 다시 봐야 하는데 강의 다시 보는 것은 안 됩니다. 다만 시발점에서도 문풀 강의와 하고 뉴런, 수분감에서도 해설강의를 하는데요. 다 수강하기엔 너무 오래 걸리지만 그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해설지를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해설지를 읽어야 독해력과 사고력이 향상되지 멍하게 해설 강의 보고 베껴 적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설지를 보는 것이 1순위입니다. 해설지를 보고도 이해가 안 되면 그때 해설강의를 봅니다. 또 강의 판서 그대로 베껴 쓰지 마세요. 강의 보면서 '음 저 사람은 이렇게 풀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세요. 그리고 혼자서 다시 풀면 됩니다. 모든 해설강의 판서 다 따라 적는 것이 가장 해롭습니다. 그 시간에 본인이 문제 하나 더 푸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완강 안 해도 됩니다. 완강 해서 좋은건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메가스터디 강사의 수익

구조상 학생이 자신의 강의를 오래 보면 볼 수록 돈을 더 많이 벌니다. 그래서 마치 강의를 전부 수강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가르칩니다. 돈 버는 수법이니 다 듣지 마세요.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또 인강 강사가 문제를 그렇게 잘 풀지도 않습니다. 말했듯이 의대생이 인강 강사보다 현재 트렌드를 훨씬 더 잘 알고 문제도 훨씬 잘 푹니다. 정말 수준급 학생은 인강 안 듣습니다. 특히 현우진은 과도하게 풀이가 긴 경향이 있습니다. 훨씬 단축시킬 수도 있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모두 케어를 해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우진을 시발점, 뉴분감까지만 듣는 것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풀이가 그리 좋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후엔 누굴 들어란 말이나? 할 것인데 아무도 듣지 말고 양치기를 해야 합니다. 현우진도 인강 듣고 공부를 잘하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혼자서 문제를 많이 풀어서 잘하게 된 것일 겁니다.

10) 문제 풀다 도저히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ㅠ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메가패스를 끊었다면 QUBE 무료 이용권을 매주 20개 줍니다. 여기에다 질문하면 메디컬, 서연고 학생이 문제를 풀어주고 해설을 해줍니다. 더 빨리 답변을 받으려면 문제 1개에 질문권 3개를 써도 됩니다. 다른 사이트는 잘 아시다시피 쿠팡다가 있습니다. 혼자 공부한다면 2가지만 써도 충분할 겁니다.

11) 썬, 개념원리, RPM, 수학의 정석, 수학의 바이블 이런건 별로인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집들입니다. 저런 책은 암기해야 하는 것과 이해해야 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 짓지 않아서 외워야 하는데 안 외우고 안 외워도 되는데 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유명한 책이긴 합니다만 저는 비추천하는 이유는 문제 스타일이 내신과 수능이랑 느낌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개념 공부를 한다면 인강을 듣는 것이 낫습니다. 이미 풀고 있다면 끝까지 풀고 난 다음 학기부터 시발점, 뉴분감을 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현우진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FAQ는 이쯤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개념 공부를 끝냈는데 그 다음으로는 유형 문제집을 풀 차례입니다.

6. <내신 수학 공부 2단계> 내신 한 달 전부터 시작하는 유형 문제집

앞단계에서 시발점과 뉴분감을 끝내고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내신 기간에 돌입합니다. 이전까지는 수학, 과학만 공부했고 내신 한 달 기간에는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해서 시간이 다소 부족합니다. 따라서 유형 문제집을 정말로 한 달 전에 풀면 안 되고 앞의 시발점, 뉴분감이 끝나고 난 직후에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많이 풀어야 1등급이 나옵니다. 먼저 문제집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난이도는 책 이름 색깔이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갈수록 어렵습니다. 풀 때는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 순으로 풀면 됩니다.

필수 ↓ 권장 필수 ↓ 권장 ↓ 선택	자이스토리, 고쟁이	1분내로 쉽게 풀림 10분 쓰면 어떻게든 풀림 15분 써도 잘 안 풀림
	올림포스 고난도, 수능특강 작년도, 족보닷컴 최상위 문제	
	531 하이퍼, 올림포스, 족보닷컴 강남 3구 기출 변형	
	블랙라벨, 최강TOT, 자이스토리 고난도, 일품 수학, 일등급 수학, 하이매스, 하이하이	상,하에 좋음 1, 2, 선택에 좋음 전과목 좋음

참고로 531 하이퍼, 하이매스, 하이하이는 풀어보진 않았고 학교 시험지에 나온 체감으로 작성했습니다. 모든 내용은 제 체감 난이도이고, 난이도가 과목마다 모두 다르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색 비율만큼 해당 난이도의 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이스토리’는 학평, 평가원 기출문제집입니다. 사관학교와 경찰청도 조금 들어 있습니다. 내신 기간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자이스토리를 풀고 있습니다. 자이스토리는 수능 전과목 시리즈입니다. ‘마더텅’도 전과목 기출 문제집인데요. 내용의 차이는 크게 없지만 종이 질감과 디자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더텅이 약간 저렴한 편인데 종이 질감이 안 좋

고 표지가 검은 바탕에 노란 글씨만 있어 안 예뵙니다. 사실 표지가 예쁘다고 실력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만 산다면 무조건 자이를 살 것입니다. 마더텅은 종이 질감이 정말 안 좋습니다. 제가 푼 건 22버전이라 25버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종이가 신문지처럼 가루가 날리고 부슬거리는 느낌이라 공부하며 씩 좋은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 외로 수학 기출로 ‘마플시너지’를 많이 푸는데 마플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걸 다 풀려면 다른 문제집을 못 풀 정도로 양이 많아서 추천하진 않습니다. 또 ‘너기출’이라는 문제집도 있고 ‘풀수록’이라는 문제집도 있으며 그 외 문제집도 많지만 제일 무난하면서 좋은 것은 자이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마다 QR코드가 있어서 유튜브 해설강의를 볼 수도 있고 해설지의 풀이도 깔끔하며 가독성이 좋습니다. 만약 자이를 푼다면 킬러를 제외하고 모두 다 푼 다음 마지막에 킬러를 몰아 풀어도 좋습니다. 이미 수분감 킬러를 암기했다면 순서대로 풀어도 됩니다. 사관, 경찰청은 시간 남으면 푸는 걸 권장하고 시간 없으면 안 풀어도 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푼 문제집 중 가장 좋아하는 문제집이 자이스토리입니다. 자이만 제대로 풀어도 학평은 1.5등급이 나옵니다. 문제 수도 적당해서 빨리 끝낼 수 있어 좋고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해서 맛있는 문제들만 수록했거든요.

자이는 내신 한 달 전쯤에 많이 보이고 학생들이 내신 3주 전, 2주 전에 많이 푸는 것은 **고쟁이**입니다. 무조건 풀어야 하는 문제집입니다. STEP1, STEP2, STEP3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STEP3는 반드시 풀어야 하고 이전 단계는 시간이 되면 푸세요. STEP1에서 가끔 어려운 문제가 나오거나 STEP2에서 꽤나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 푸는 것이 당연히 좋긴 합니다. 저는 STEP3는 무조건 다 푼 다음, 시간을 보가며 STEP2까지는 최대한 풀려고 했고 STEP1은 시간이 없다면 풀지 않았습니다. 고쟁이가 아까 리스트에 있는 문제집 중 가장 양이 방대합

니다. 자이와 고쟁이만 풀어도 최소 내신 2등급이나 3등급은 보장됩니다. 고쟁이는 이투스에서 만든 자작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데 문제들이 내신 수학 스타일이라 학교 쌤들이 많이 참고하는 문제집입니다. 고쟁이는 내신 문제집인 만큼 수능 과목보단 상, 하에서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과목이라도 꼭 풀어야 하는 문제집 1순위입니다.

그 다음 **올림포스 고난도**는 EBS에서 만든 책인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고쟁이 정도의 난이도로 깔끔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수학 문제가 ‘깔끔하다.’, ‘맛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꽤나 난이도가 있지만 너무 조잡하거나 시간만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 실력을 올리는데 도움을 주면서 제대로 된 방법을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맛있다.’, ‘깔끔하다.’라고 합니다. 웬만한 문제집은 유튜브에 검색해도 해설강의가 나오지만 모든 EBS 문제집은 문제 위의 문항 코드를 EBSi 앱에서 입력하면 무료로 강사의 해설강의를 수강할 수 있어 EBS 책이 좋기도 합니다. 올림포스 고난도는 ‘내신 상위 4% of 4%’ 라는 챕터가 있는데 이것은 풀리면 좋겠지만 안 풀렸을 때 정신 건강에 해로울 정도로 매우 어렵습니다. 선넘은 문제도 많으니 한 번 도전해보고, 해설강의 보고 난 다음 다시 풀어보는 정도만 공부하면 됩니다. 완전히 정복하려면 다음 진도 못 나갑니다. 이 책도 내신 스타일이라 수학 상, 하에서 퀄리티가 좋습니다.

수능특강입니다. 간혹 쌤들이 수특에서 문제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수특은 고3 시험지에 사용하므로 작년 수특을 풀어야 내신에서 적중할 수 있습니다. Level3만 풀어도 되는데 간혹 가다가 유제에서 멘탈 나가는 문제도 나와서 다 풀면 좋겠습니다. 수특은 수능 연계 교재이므로 상, 하 과목은 팔지 않습니다.

죽보닷컴 최상위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풀고 싶은데 뭘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강남 3구 기출 변형과 함께 이걸 풀면 됩니다. 말 그대로

최상위권이 푸는 문제라 너무 어렵습니다. 문제집은 아니고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 직접 인쇄하거나 제본소에 맡겨야 합니다. 족보닷컴은 우리 학교 기출, 최상위, 강남 3구 아니면 다른 컨텐츠는 너무 쉽기 때문에 안 풀어도 됩니다. 교과서 변형은 좋았지만 교과서 회독이 더 낫습니다.

531 하이퍼입니다. 시험에 나오기 전까지는 있는 줄도 몰랐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직접 사서 풀어보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학교 시험에 나온 것만 보면 이걸 뭐.. 그냥 풀지 말라고 만든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나옵니다. 수학 상, 하, 1, 2 이렇게 있고 미적분1 미적분2 이런 이상한 과목이 있는데 수학1, 수학2에서 강점을 보이는 책입니다. 매우 어려우니 멘탈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푸세요.

올림포스입니다. 지방의 일반적인 일반고들이 학교 부교재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너무 쉽습니다. 저는 이 책을 한 2주 전, 1주 전에 다른 암기 과목을 외우고 있어서 수학에 시간을 쏟기 힘들 때 풀었습니다. 1주일만에 푸는 것을 목표로 내신 15일 전에 풀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에 감잡기 용으로 풀면 정말 좋은 책입니다. 가격도 매우 저렴하고 매우 얇고 문제도 깔끔하면서 속속 잘 풀립니다.

블랙라벨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근데 그래서 그런가 전교생이 다 푸는 문제집이기 때문에 내신 시험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3년동안 2문제 나왔던 것 같네요. '이것이 수능이다!'라는 챕터가 있는데 수분감, 자이까지 했다면 웬만한 것들 다 풀었으니 굳이 안 풀어도 됩니다. 블랙라벨의 꽃은 보라색 챕터로 '심화 발전' 페이지인데요. 여기는 올림포스 고난도의 4% of 4%와 비슷합니다. 안 풀리면 답지 보고 그렇구나... 하며 넘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문제들이 좋으니 혼자서 다 풀어야 합니다. 심화 발전도 가능하다면 혼자서 다 푸시고요. 블랙라벨은 상, 하, 1, 2, 선택 전과목이 밸런스가 맞아 다 어렵습니다.

최강TOT입니다. Top Of Top의 약자로 매우 어렵다고 자랑하는데 상, 하가 매우 어려웠고 확통은 별로 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간혹 이상한 문제 나오면 멘탈이 털리는데요. 블랙라벨보다 살짝 쉬운 것기도 하고 살짝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나쁘지 않았습니.

자이스토리 고난도입니다. 수분감, 자이스토리만으로도 기출을 다 풀었으니 굳이 안 풀어도 됩니다. 풀었던 킬러 문제를 다시 푸는 용이고 중간 4점, 4점 킬러 기출만 모아 두었습니다. 기출을 또 풀고 싶거나 풀 것이 없다면 푸시기 바랍니다. 수1 수2 미적이 한 권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일품수학입니다. 일품이라고 하는데 삼품은 되는 것 같은 문제집입니다. 내신용 문제집이고 상, 하에 강한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적당히 어려우면서 쉬운 것 같기도 합니다. 얇아서 금방 풀거예요.

일등급수학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등급수학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긴 한데 일품 수학이랑 비슷합니다. 얇으면서 쉽습니다.

하이매스, 하이하이는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 하에 강한 문제집이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실력이 충분할 때 유형 문제집 푸는 방법

다다익선입니다. 다 풀면 됩니다. 풀 수 있는 대로 다 푸세요. 내신 3주 전까지 계속 수과탐만 풀면 됩니다. 단, 올림포스는 조금 아껴주세요. 남은 기간 동안 암기과목 공부할 때 감잡기 용으로 쓸거니까요. 저걸 다 푸는 것이 말이 안 되고 불가능 해 보일 수 있지만 문제집 10권 정도 푸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6권째 풀고 있으면 “뭐야 내신 문제집들이 다 뭐 거기서 거기네. 저번에 봤던 문제 또 나오고 있네. 50번은 풀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 또 나왔네! 지루하다!! 좀 색다른 문제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면 이후에는 하루에 문제집 한 권씩도 풀니다. 계속 풀면 풀 수록 실력이 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6시간 공부해서 40문제 풀니다. 형편 없는 실력이죠. 하지만

계속 풀면 실력이 쌓이고 나중에는 6시간에 200문제를 풉니다. 또 어려운 유형 문제집들은 매우 얇기 때문에 10권은 금방 풉니다. 자이, 고쟁이 정도만 두껍지 다른 책들은 한 3~4권 쌓아야 자이, 고쟁이 두께가 됩니다. 수학에 실력이 쌓여 적응이 됐다면 저런 책들은 이틀이면 다 풉니다. 하지만 이렇게 푸는 것을 입문자가 바로 하는 것은 힘들고 중학생 때 선행을 했거나 고3쯤 돼야 머리가 트여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 현실적인 유형 문제집 푸는 방법

만약 한 학기에 수학과목이 2개씩 들어가 있고 중학생 때 선행을 안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자이, 고쟁이까지만 풀어도 됩니다. 3주 전까지 어떻게든 끝내주세요. 못 풀면 억지로 풀지 말고 남기고요. 3주 전부터는 감잡기용으로 올림포스만 풀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만 해도 정말 많이 푼 거예요. 이렇게 하고 바로 다음에 알려드릴 방법을 적용하면 운 좋게 1등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7. <내신 수학 공부 3단계> '2주 전' → '1주 전' → '5일 전'까지의 전략

이 시기가 수학 내신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문제집을 풀었더라도 2주 전부터 감잡기 연습을 안 하고 아예 수학에서 손을 놓으면 감 다 잃고 3등급 받습니다. 실력을 쌓는 것은 3주전까지, 그 이후에는 실력을 유지하기 싸움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 올림포스가 가장 좋습니다. 약 300문제쯤 되는데 2주 전에 시작해서 열흘만에 끝낼 수 있도록 하루에 30문제씩 푸세요. 문제가 쉬워서 금방 풀릴거예요. **계획할 때는 항상, 무슨 과목이든 간에 '하루 30문제'처럼 문제량 기준으로 계획하세요. '하루 3시간'처럼 시간 기준으로 하지 말고요.** 하루 30문제씩 풀 때 질질 끌지 말고 최대한 빨리 풀도록 노력합니다. 이제 5일 전입니다. 이때까지 수학 교과서, 프린트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왜냐면 5일 전에 몰아서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과서, 프린트를 시험 직전에

몰아 푸는 이유는 연계 체감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내신 시험에서는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 학생들이 고득점을 하도록 장치를 설치하는데 그 장치가 바로 교과서와 프린트입니다. 많이는 안 나오지만 각 시험에서 한 5문제쯤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 수가 적다고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 유출이나 다름 없는 말 그대로 주는 문제를 고민하며 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국어 파트에서도 설명드렸듯 주는 문제는 1분 내로 매우 빠르게 정답을 고르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분명히 프린트에 있었는데 어떻게 푸는 거였지?.. 어..... 어..... 하.... 어떡하냐.... 일단 미분해야하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남들은 10초만에 풀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어 뭐야? 이거 수2 프린트에 있던 그 문제잖아! 완전 땡큐네. 아니 근데 이거 답이 5분의 3 아니었나? 근데 a분의 b에서 a+b가 뭐냐고? 뭐긴 뭐야 8이지. 문제 조건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일단 8로 선지 4번 고르고 서답형 답안지의 세모 칸에다가 11번 문제 적어 두고 넘어가자. 나중에 시간 남으면 풀어봐야겠다. 맞추면 레알루 개이득인데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풀었으니 세모를 볼까? 11번 문제라.. 보자. 그냥 뭐 이거 대입하고 미분한 다음에 그래프 그리면 되잖아. 뭐야 5분의 3 나와서 8 맞네. 괜히 다시 풀었네. 아.. 다 풀었는데 아직 20분이나 남았잖아?! 서답형이나 잘못된 것 있는지 다시 체크해야겠다.”

내부 문제의 풀이와 답을 외우면 압도적 실력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건을 안 바꿨다면 5초만에 푸는 것이고 조건을 바꿔도 너무 익숙해서 1분만에 풀니다. 안 외운 친구들은 고민하면서 5분을 씩습니다. 여기서 벌려진 5분이 5개입니다. 그러면 25분이죠?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25분을 확보했으니 이제 킬러에 시간을 쏟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531 하이퍼의 풀지 말라고 낸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보통 서답형 맨 끝에 8점으로 나오는데 문제 2개 푸는 것과 같은 점수라 맞추면 압도적

인 점수차로 1등급이 되죠. 왜 교과서와 프린터를 5일 전에 회독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5일만에 저렇게 되는지 알아보시다.

간단합니다. **교과서, 프린트의 모든 문제를 5번 정도 최대한 빠르게 풀어보면 됩니다. 최소 3번은 푸셔야 합니다.** 다 합치면 한 300문항 될 것인데요. 풀집중 해서 풀면 1회독에 한 10시간 걸릴거예요. 말이 300문항이지 교과서 발로 푸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래 안 걸립니다. 그리고 2회독을 하면 60%의 법칙에 따라 6시간이 되고 3회독을 하면 3시간 반, 4회독을 하면 2시간, 5회독 하면 1시간 20분, 6회독 하면 40분이면 될 거예요. 총 23시간이 소요되는데요. 하루에 10시간 한다고 잡으면 5일 안에는 어떻게든 끝나게 될거예요. 또 시간 압박이 있어야 쫓기하게 집중해서 빨리 풀거든요. 따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5회독쯤 하면 시험장에서 문제를 보자마자 어떻게 푸는지 다 떠오르고 정답이 무엇인지도 기억날 것입니다.** 물론 정답은 완벽하게 기억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를 전부 다 회독을 해도 되고 만약 모종의 이유로 시간이 없다면 틀린 문제만 모아서 인쇄한 다음 맞출 때까지 풀어도 됩니다. 처음 풀어서 맞춘 것은 시험장에서도 맞출 확률이 높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모든 문제를 최소 3번은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8. 시험장에서 행동 강령 + 4찍 4맞으로 전교 2등 된 이야기

시험장에서는 V. - 03,에서 알려드린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수학에선 찍맞 확률도 높고 모르면 일단 넘어가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험장에서 충분히 고민했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 지 모르겠는 이유는 실력이 있더라도 아직 시험 초반이라 뒷 문항이 남아 있어 긴장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남은 문제들을 다 처리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면서 파해법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V. - 03. 꼭 적용해보세요. 또 수학이 찍맞 확률이 가장 높다고 했는

데 그 이유는 수학 시험지의 문제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제가 4개 찍맞으로 미적분 전교 2등이 됐다고 했는데요. 그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9번이 첫번째 고비였습니다. 구해야하는 것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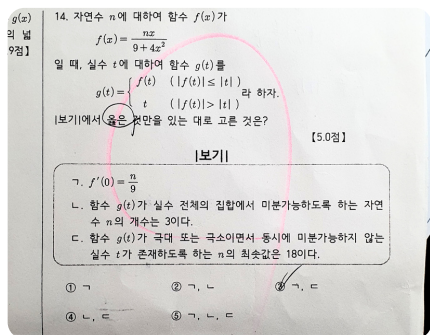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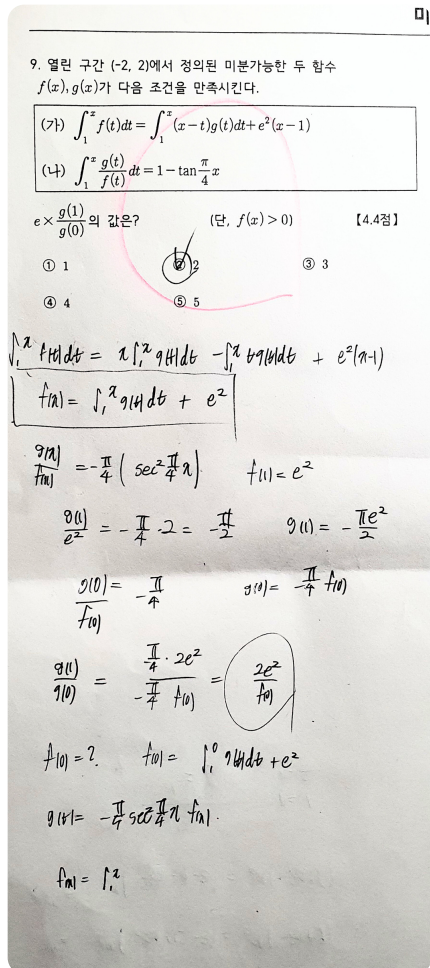
$$\text{정답} = e \times \frac{g(1)}{g(0)}$$

계산을 하며 아래를 구했습니다.

$$\frac{g(1)}{g(0)} = \frac{2e^2}{f(0)} \quad \text{①}$$

문제는 f(0)을 어떻게 해야 구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①의 우변을 보면 2가 들어 있습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무리수 e만 사라지고 2가 정답일 확률이 높지 갑자기 f(0)이 무리수 e가 포함되면서 분수인 $\frac{2}{3}e^3$ 이 나오고 정답이 3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풀이법은 모르겠는데 2번 선지 말고는 답이 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일단 2번으로 체크한 다음 달팽이 칸에 9번을 표시하고 넘어갔습니다. 운이 좋게도 제 예상이 맞았죠.

다음은 14번인데 이건 딱 보기만 해도 이걸 풀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절대 먼저 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달팽이에 넣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15번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풀다가 막혔는데요. 거의 70%쯤 풀어서 정답은 다음과 일치합니다.

$$\text{정답} = (a + 1)e - 5$$

문제는 a를 못 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지를 보면 상수항이 -5인 것이 5번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5번을 제외한 나머지 선지와 같이 상수항이 -5가 아니라면 $ae = \text{숫자}$ 꼴이 되어 a는 무리수가 됩니다. 하지만 조건에서 모든 항의 계수가 유리수라 했으므로 a는 1이 될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운 좋게 하나 맞추었네요. 설계 오류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객관식 16번입니다. 이걸 할 만해 보이긴 하는데 'ㄱ만 쉽고 ㄴ, ㄷ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때 시간이 13분 밖에 안 남았고 서답형 4번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일단 ㄱ은 선지에 4개나 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ㄱ은 맞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ㄴ, ㄷ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포기하고 서답형 4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수능 킬러 2개를 섞어 놓은 문제였습니다. 겨우 반 정도 풀고 부분점수 3점을 얻었는데 후반전은 도저히 못 풀겠더군요. 이제 시간이 5분 남았지만 아직 마킹도 안 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먼저 마킹을 빠르게 해줍니다. 그리고 OMR을 보면서

마.

15. 모든 항의 계수가 유리수인 일차함수 $f(x)$ 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한 함수 $g(x)$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모든 양의 실수 x 에 대하여 $g(x) = \int_1^x \frac{f(\ln t)}{t} dt$

(나) $\int_1^e x g'(x) dx = 5 - e$

$\int_1^e g(x) dx$ 의 값은? [5.1점]

① $e - 1$ ② $2e - 3$ ③ $e + 1$
 ④ $2e - 1$ ⑤ $2e - 5$

$y = g(x)$
 $x = g'(x)$
 $f = g(x)$
 0

$\int_1^e g(x) dx = \int_1^e g(x) dx = 5 - e$
 $e g(e) - g(1) - \int_1^e g'(x) dx = 5 - e$
 $e(f(e) - f(1)) + e - 5 = 5 - e$
 $ae^c + e - 5$

$\ln t = k$
 $\frac{1}{t} dt = dk$
 $g(x) = \int_0^{\ln x} f(k) dk$
 $g(x) = [f(k)x] - f(1)$
 $g(e) = f(e) - f(1)$
 $g(1) = f(1) - f(1) = 0$

$g(1) = 0$
 $f(1) = ax + b$
 $f(1) = a + b$
 $f(e) = b$

16. 함수 $f(x) = \frac{1}{2}x^2 e^{-x+2}$ 에 대하여 $g(x) = f(f(x))$ 라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5.2점]

(단, $\lim_{x \rightarrow \infty} \frac{x^2}{e^x} = 0$)

|보기|

ㄱ. 곡선 $y = f(x)$ 의 변곡점은 2개이다.
 ㄴ. 함수 $g(x)$ 는 $x < 0$ 에서 극대값을 가진다.
 ㄷ. x 의 방정식 $f'(x) = 1$ 의 실근은 1개이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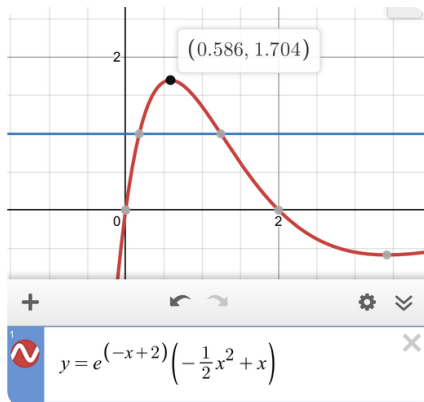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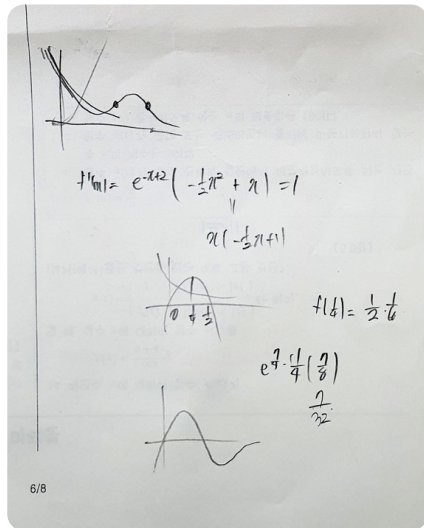
선지 개수를 빠르게 세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오른쪽처럼 나왔습니다. 만약 9번과 15번을 찍어서 맞추었다면 파란색 숫자가 더해지고요. 현재 상황은 종료까지 2분이 남았고 14번, 16번, 서답형 4번 절반을 못 풀었습니다. 서답형은 어차피 못 풀 것 같으니 포기합니다. 이제 선지 개수 구조를 통한 찍기를 시작합니다. 이번 학기 쌤들은 항상 33334 구조를 내왔습니다. 33334 구조가 되려면 14번과 16번은 반드시 2번과 3번 아니면 3번과 2번이어야 합니다. 보통은 둘 다 2번이나 3번으로 미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16번을 잠시 보니 웬지 ㄷ은 바로 나올 것 같았습니다.

1111
22
33
444
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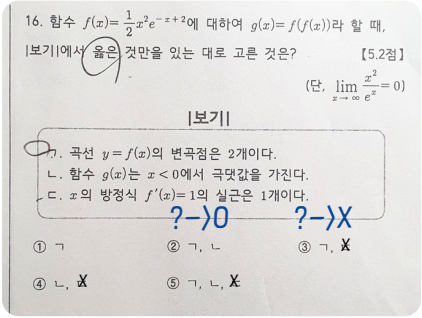
16. 함수 $f(x) = \frac{1}{2}x^2 e^{-x+2}$ 에 대하여 $g(x) = f(f(x))$ 라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5.2점]

ㄷ. x 의 방정식 $f'(x) = 1$ 의 실근은 1개이다.

먼저 $f'(x)$ 구하는 계산은 매우 기초적인 계산 구조라 수백 번은 연습했기 때문에 빠르게 나옵니다. 실은 여기서 $f''(x)$ 까지 구해야 하지만 지금 시간이 거의 30초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이차함수의 극대값이 나오는 x 를 넣어 봅니다. 그럼 극대값이 $\frac{7}{32}$ 로 나오는데 이 값은 $y=1$ 보다 현저히 작기 때문에 실근이 0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운이 좋았던 것이고 실제로는 미분을 한 번 더해서 초월함수의 극대값 y 좌표를 구해야 합니다. 오른쪽과 같이 극댓값은 1보다 큰 값이 나와서 0개가 아니라 2개라서 틀린 것입니다.



아무튼 \square 이 틀린 것은 변함없이 없죠.
 16번 정답이 2번 또는 3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square 이 틀렸으니 16번의
 정답은 2번이어야 합니다. 그럼 남은
 14번은 3번이 됩니다. 이제 5초가 남았
 습니다. 글로 주저리주저리 설명하고



있지만 그때의 저는 두뇌를 풀가동 중이었고 시간도 없고 정신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OMR을 꺼내 들고 14번에 3번 마킹, 16번에 2번
 을 마킹합니다. 마킹을 끝내자마자 운명의 종소리마냥 시험이 끝납니다.

결과는 객관식 만점이었습니다. 그때 객관식 만점은 전교에 2명뿐이
 었습니다. 기말고사 기준으로 전교 2등이었습니다. 서답형 4번 절반을
 못 풀어 3점만 얻었기에 93점이었습니다. 전교 1등은 아마 인서울 의대
 그 친구 아니면 수학 천재인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만점은 아니고 서답
 형 4번에서 감점 되어 96점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미적분 중간고사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성적표를 첨부했다시피
 중간고사를 70.9점을 받았습니다. 등급으로 따지면 5등급이었습니다.
 중간 때 성적표를 받고 심각성을 깨달으며 완전 각성했습니다. 공부도
 훨씬 더 많이 했고요. 시험장에서 9번이 안 풀렸을 때부터 심장이 덜컥
 거렸습니다. 그때부터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남는다
 는 말이 진짜인 것처럼 두뇌가 풀가동 되었습니다. 2등급이 17등까지인
 데 이것도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딱 17등이 되어 2등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봐도 기가 막히네요. 4문항을 못 풀었는데 만점이라니..

사실 비슷한 일이 생명과학 학평 때도 있었습니다. 30초 남았는데 3문
 제를 찍어서 맞췄죠. 시험에서 1문제 정도는 찍어서 맞춘 적이 너무 많아
 서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찍는 것도 실력입니다. 위의 이야기
 를 참고하셔서 못 푼 문제들을 반드시 찍어서 맞추시길 바랍니다.

9. 마지막 조언 : 샤프를 최대한 세게 쥐고 최대한 빨리 푸는 연습을 하세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내용 역시 중요합니다. 절대 노래 들으면서 수학 문제 풀지 마세요. 느긋하게 할 시간 없습니다. 눈에 힘 팍 주고, 샤프 째아악 쥐고,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문제를 푸세요. 이렇게 해야 1등급이 나옵니다. 단, 평소 문제 푸는 연습을 할 때 의식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풀려고 하고, 시험장에서는 의식적으로 빨리 풀려고 하지 마세요. 평소 연습할 때 항상 빨리 풀려는 연습을 하고 실제로 빨리 풀면 손이 거기에 익어갑니다. 그러면 내신 시험장에서 의식적으로 빨리 풀려는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천천히 풀더라도 남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풀 수 있게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실수를 하나라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것은 한 번에 무조건 맞춘다.’라는 생각만 하며 풀면 됩니다.

평소에 최대한 빠르게 푸려고 노력하세요. 쉬는 시간이 10분인데 ‘10분 안에 문제를 2개나 3개씩 풀어보겠다!!’ 하며 공부하세요. 빠르게 풀면 그만큼 계산 실수가 많아지는데요. 양이 쌓이면 빠르게 풀면서 계산 실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최대한 빠르게 푸는 연습을 매우 많이 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속도와 정확도 둘 다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을 실행하셨다면 내신에서 완벽히 다 풀어서 100점인데도 시간이 30분이 남는 기적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확통 때 그랬습니다. 내신은 정말 피터지게 해야 합니다. 진짜로 코피까지 날 정도로 해야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수학 공부법만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신 전과목 1등급 공부법
수능 1등급 공부법

공부시간 15시간까지 늘리는 법

실패 없는 플래너 작성법

컨설턴트도 극찬한 생기부 작성법

연세대 면접 대비법

⋮

등 입시의 모든 것을 다 담았습니다.

장담컨대 모두 읽어보면

공부의 막막함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요즘 연대생 합격 생기부 하나만
5만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합격 생기부 풀버전에
입시의 모든 정보와 공부법을
담았습니다.

5만원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할 것이고 절대 그 돈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수백 부 이상 판매되었고
하루에 70권씩 나갔습니다.

★★★★★ 4.9

♡ 찜 215



★★★★★ 5

zofl**** · 24.03.01. · 신고

안녕하세요.

저희 중2되는 아들에게 이 책을 선물했는데
 이 늦은시간까지 책을 읽고있네요. 중간중간에 6평,9평이라는 표현과
 서연고가 무슨뜻인지 몰라서 저한테 물어봤는데 ㅎㅎ저도 잘 모르겠더
 라구요~그러다 네이버에 찾아보고 알게되었는데요~아들과 제가 모르
 는 걸 알아가서 참 좋습니다. 책에 큰글씨로 적혀있어서
 부담없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내용도 그렇구 넘 강추합니다!
 저희 아이는 혼자 공부하는 아인데 책을 통해 많은것을 얻어갔으면 좋
 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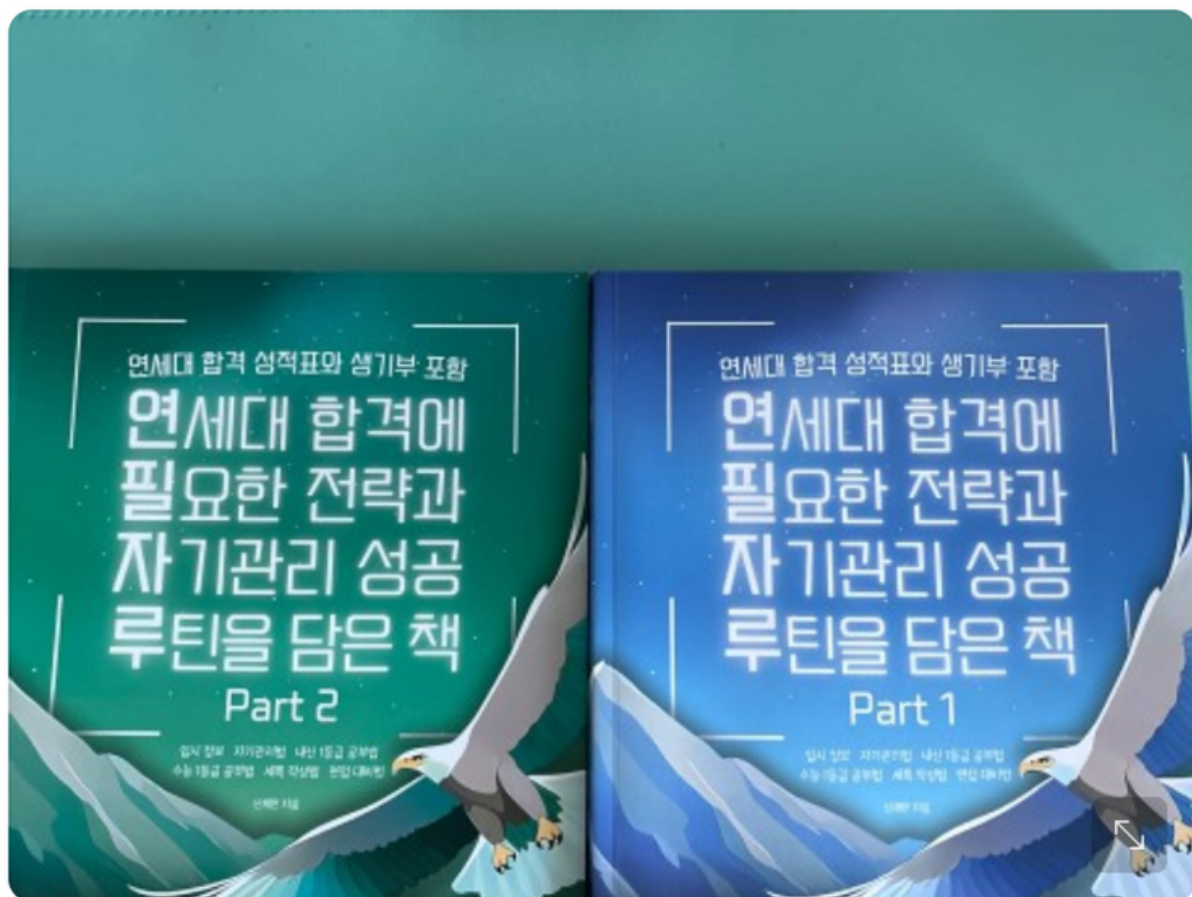


★★★★★ 5

ynob***** · 24.03.01. · 신고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하는 방법과 수시 정시에 대한 정보들 효율적인 공부 방법 수면 관리 자기관리 방법 등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고 가장 좋았던 점은 생기부 세특 작성법이었는데 어려워 하던 생기부 세특 쓰는법을 너무 쉽게 설명이 되어있고 예시도 있어 이해하기가 쉬웠다 그리고 내신 시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1등급이 나오는지도 상세하게 적혀있어 수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강추다

더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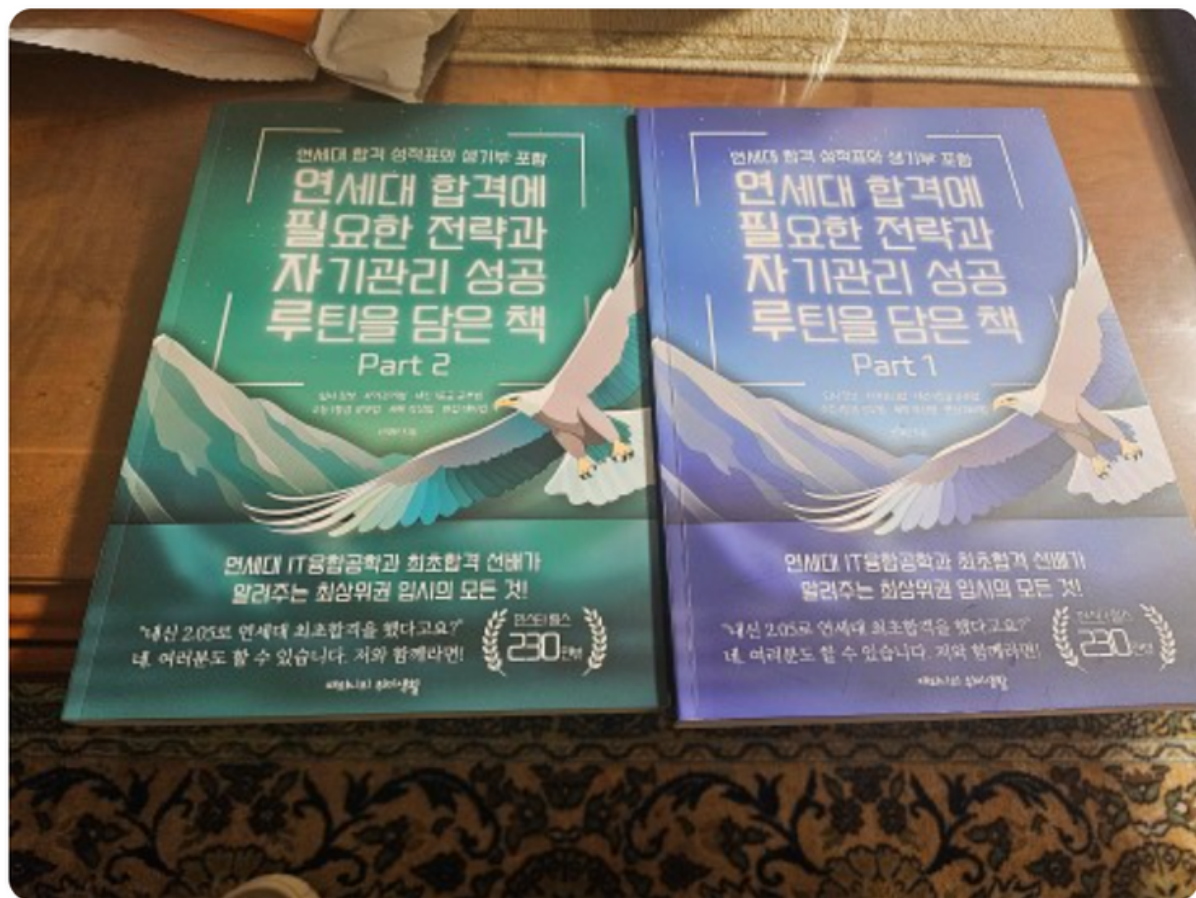


★★★★★ 5

cka6*** · 24.03.03. · 신고

도움 말

아이가 고1되는데 도움이될까 구매해봤는데 아이가 읽어보더니 너무 좋아하네요 있는그대로의 입시경험 너무나 도움됩니다 감사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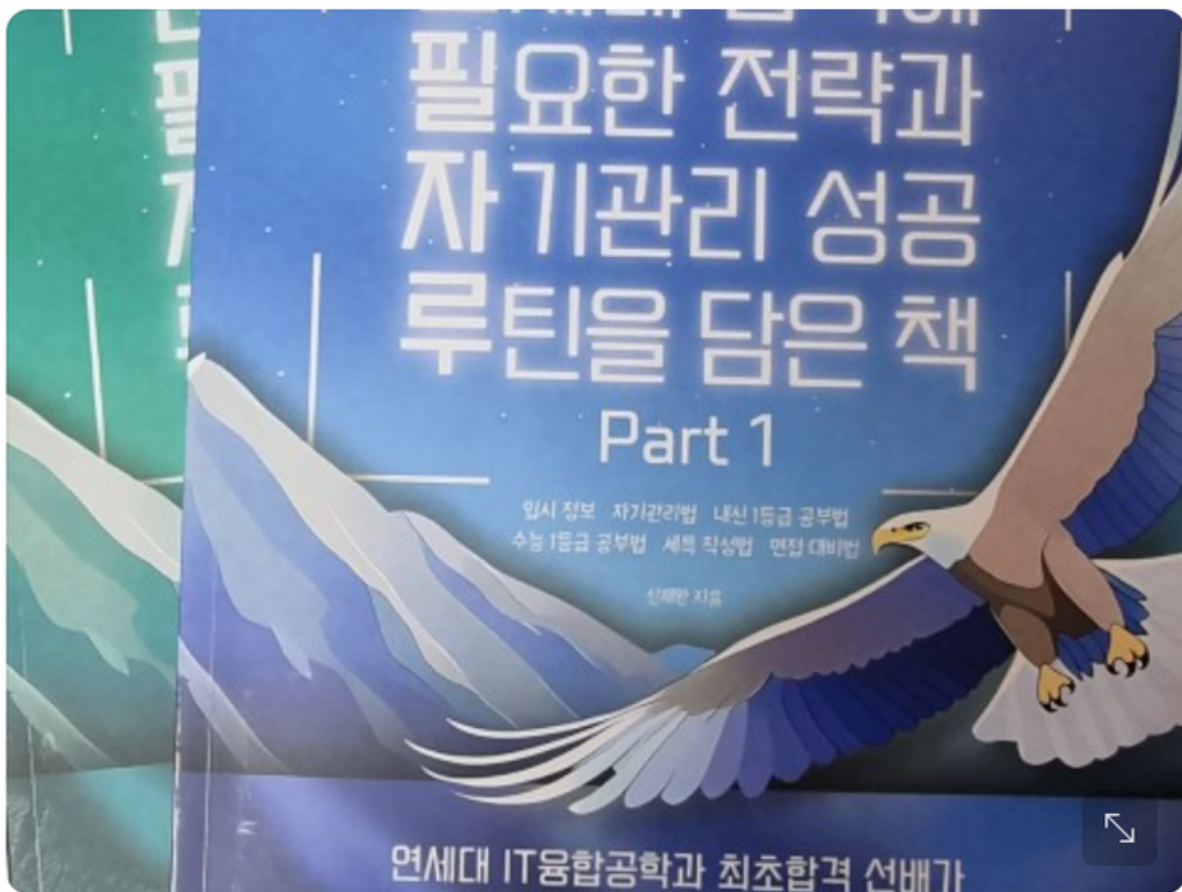




★★★★★ 5

soms***** · 24.03.10. · 신고

제가 먼저 읽고 싶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울공주손에 들어가버렸어요..
진심어린 내용 그리고 말씀들 참으로 고마운 말씀들 뿐입니다. 수업이
많으시지요? 그래도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울공주가
작가님을 선배님으로 만날수 있길 기도합니다..





★★★★★ 5

sunj***** · 24.03.16. · 신고

중학생 딸이 사달라고 해서 구매했어요
엄청 빨리왔고 늘 침대 옆에 두고 보네요
잘 받았습니다





★★★★★ 5

pret***** · 24.03.01. · 신고

신학기를 앞두고 입시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기획부터 디자인 출판까지 이 모든 것을 혼자 해낸 청년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중고생 필독도서 강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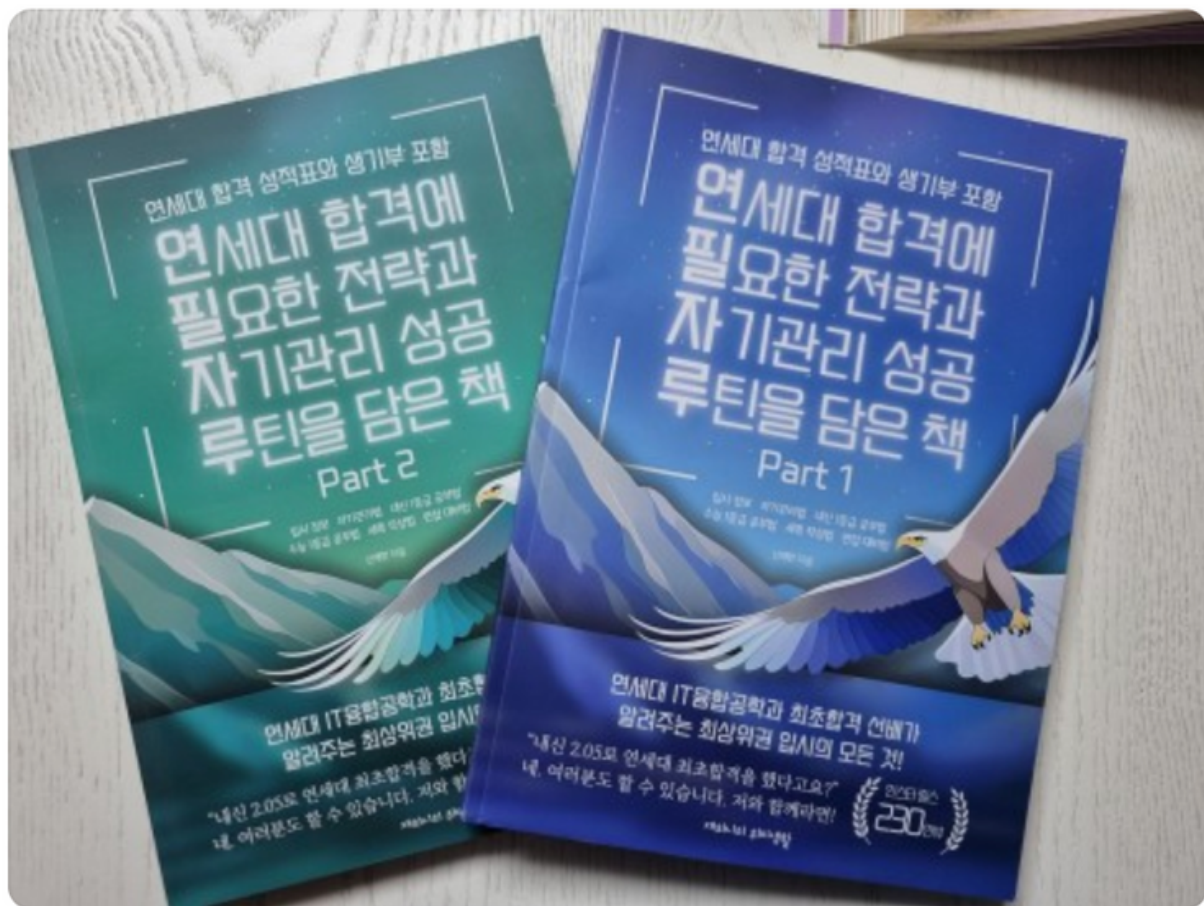
★★★★★ 5

ssso***** · 24.03.14. · 신고

아이가 보더니

너무 좋대요~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거같아요~





★★★★★ 5

ggod**** · 24.03.03. · 신고

고2아들에게 읽어보게 하려고 구매했고 아직 꼼꼼하게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야무지고 계획성있게 공부했던 선배의노하우를 배울수있는 귀한책이네요. 체계적으로 다양하게 정리가 되어있네요. 아이와 같이 잘 읽어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 5

plip*** · 24.03.10. · 신고

막막했는데. 아이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원고, 디자인, 인쇄,
출판, 배송, 마케팅까지
모두 저 혼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 신재완 석자를 걸고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

연세대 IT융합공학과 24학번 최초합격!!
“제가 이 책과 함께 고등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간다면 올 1등급 받을 자신 있습니다.”



신재완 지음 | 316 + 240 (546쪽) | 종이책 Part1 26,800원 + Part2 26,800원



내신 수학
무조건 1등급 받는
방법 4단계

한 영상만
230만뷰 달성!

이미 입증된
공부법의
플버전을 모두
수록했습니다.



“방향성이나 서술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이 선배의 생기부는 일반고 친구들이 꼭 참고해봤으면 좋겠다.”

- 윤여정 입시 컨설턴트, 유니브 클래스 합격생 노트 중에서

입시 콘텐츠 유튜브 채널,
유니브클래스 [합격생노트] 출연!

알림 센터

sj_☒_s2

10초 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게 이런건가 보네요... 제가 발린 이유를 잘 알았습니다...

김O연

30초 전



내가 아이가 있다면 과외 선생님이로 모시고 싶다...

고O반

1분 전



학원 안 다니는 학생으로서 너무 유용한 팁들이네요!!

조O름

3분 전



정말 공부하신 분이래 다르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Ice☒☒☒dic ☒☒☒

4분 전



공부법도 그렇고 내용도 너무 훌륭해서 컨설팅을 맡기고 싶을 정도네요.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극찬한 공부법 및 생기부 작성법을 모조리 담았습니다.

연세대 IT융합공학과 24학번
내신 2.05로 최초합격한 선배가
알려주는 최상위권 입시의 모든 것!

입시 정보 자기관리법 내신 1등급 공부법
수능 1등급 공부법 세특 작성법 면접 대비법

고등학생이 되기 전부터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까지의
모든 입시 정보를 짝 다 담았습니다!

“제가 이 책과 함께 고등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간다면
올 1등급 받을 자신 있습니다.”

입시 시장은 가격 뺏튀기가 심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누구보다 상세하고 자세하게,
누구보다 입시관을 현실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SKY 갈 수 있습니다.”

입시 정보

입시 설명회 수강 100,000원

자기 관리법

온라인 자기 관리법 강의 수강 100,000원 / 월

내신 1등급 공부법

동네 학원 (과목당) 300,000원 / 월

내신 공부법 과외 70,000원 / 시

수능 1등급 공부법

기숙학원/관리형 독서실 1,000,000원 / 월

수능 공부법 과외 100,000원 / 시

세특 작성법

생기부 컨설팅 진행 300,000원 / 시

생기부 자료 구매 (개당) 100,000원

면접 대비법

면접 개념 자료 구매 (8과목) 1,000,000원

면접 과외 75,000원 / 시

모의 면접 학원 수강 150,000원 / 시

합계 3,295,000원 + α

이 모든 것을 53,600원에

담았습니다!

입시 정보 자기관리법 내신 1등급 공부법
수능 1등급 공부법 세특 작성법 면접 대비법

연필자루 Part 1 26,800원

연필자루 Part 2 26,800원

부록 : 공부 자료 56개 0원

합계 53,600원

책 구매하는 법 (1)

네이버에서
'연필자루책'이라고 검색합니다.

N 연필자루책



- blog 블로그
- ☕ 카페
- 🖼️ 이미지
- 🔍 지식iN
- 👤 인플루언서
- ▶ 동영상
- 🛒 쇼핑 >
- ...

네이버 도서 ⓘ

다른 사이트를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다른 사이트 더보기](#)



연필자루, 연세대 합격에 필요한 전략과 자기관리 성공 루틴을 담은 책 Part1+2세트

저자 신재완

출판 재와니의 취미생활 · 2024.02.26.

구매 342 · 리뷰 17 · 점 212

도서 재와니의 취미생활 **Npay+** 이벤트

53,600원

그후 네이버 쇼핑 사이트를 통해
구매합니다.

책 구매하는 법 (2)



bit.ly/alem64

위 링크를 복사하고 브라우저 주소창에 입력합니다.



또는 위의 QR코드를 촬영합니다.
그후 네이버 쇼핑을 통해 구매합니다.